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17면에서 계속

고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도 되는 것이 바로 여기의 문제다 이거야. 그 문제도 되지마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 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 거야, 이게, 응?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남편을 섬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도리를 모르면 항상 배가 고프고, 허허,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못 쓰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거리로 다니게 되고. 뭐, 집에 들어가 자질 못해서 거리로 다닌다는 게 아니야. 집이 있어도 그건 거리 노중에서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집이 없고 내 주인이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만날 얻으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고 노예 문서를 항상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 노예 문서를 태워 버려야 되지.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것은 중이라고 해. 중!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심월, 심월봉에서 불이 그냥 번쩍 나면, 그냥 번개같이 번쩍 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붙는 대로 타 버리는 거라. "붙는 대로 타 버리니 무엇이 붙을 게 있고 뗄 게 있으랴! 그러면서도 여여함이 있으니 어찌 좋지 않으랴!" 이런 거라.

여러분이 "왜 그러면 스님은 깨달아지게끔 빨리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러느냐?" 그러지마는, 하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밥을 먹어 보고, 한 숟가락 먹어 보고 두 숟가락 먹어 보고 세 숟가락 먹어 보고, 이것도 먹어 보고 저것도 먹어 보고 그럴 때에 맛이 다 달라. 어떻게 한 가지 맛만 보고서 그것을 다 알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야, 수천수만 가지인데. 그러면 한 가지 먹어 보고 '아, 이건 쓰더라.' 쓴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단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땐가 세 가지가 포함해서 그냥 몰락 그게 되는 거지. 된다 할지라도 알았다는 그 생각의 자존심과 또는 아만, 아상, 욕심, 착 이런 거를 다 떼고 겸손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면서 번연히 떡그릇인 줄 알면서도 엎드러져 봐라 이거야. 그럼 거기서 진의가 나온다 이거야. 내가 높다고만 세워 놓으면 아무리 배우려도 높게 있기 때문에 얕은 데를 뛰어들어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말하고 나서 얘기해야겠군. 여기는 우주 줄도 있고 지능 줄도 있고 지혜 줄도 있고 참, 그, 물리가 터지는 줄도 있고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아.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줄도 있고 또 용궁 줄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 줄도 있고 지장보살 줄도 있고 다 있어. 여기는 뭐, 없는 게 없이 있어, 이 줄이! 여기 이 보당에 전부 달렸다 이거야, 안팎 보당에. 안으로는 안으로대로 쓰면서 바깥으론 바깥에대로 여여하게 쓴다 이거야.

안팎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중이라고 할 수 없어. 옷을 입어서 중이 아니야. 머릴 깎아서 중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건지고자 해서 이 도량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이야. 만약에 중이 돼 가지고 한 도량에서 요 절간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운영하고 먹고살기 위함이요, 남한테 절이나 받기 위함이요, 목탁이나 치기 위함이라면, 허허, 차라리 이런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당당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 그렇게 성스러운 석가모니 부처가 계신다 해도 난 어쩐지 말이야, 바람과 같이 스쳐 가는 그 한때, 바람과 같이 스쳐 도는데, 훌떡 스쳐 돌면 또 딴 것이 되고 훌쩍 스쳐 돌면 딴 게 되고 하는데 뭐를 부처라고 세우고 뭐를 눈 밝은 사자라고 치고 또 눈먼 개라고 치느냐 이거야. 도대체 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눈먼 개는 개고, 눈 밝은 사자는 사자야.

그런데 나는 때에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육조를 쳐라, 신수 치듯이." 그러면 그것은 서로 간에 말동무라도 좀,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이치가 있다고. 없는 건 아니야. 곧바로 탁 해 버리면 말이 없어지거든. 안 그래? 그럼 서로 놀기 위해서도 그것을 비스듬하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런다고. 그것도 재밌는 거라고. 또 그렇게 해 놓고는 빙긋이 웃고…. 그럭하다 보면 이 봉오라지에다 딱, 그냥 그쪽에다 탁 해 버리면 그때에 가서야 '아이고, 참!' 하고서 그때는 인제 없어지는 거지.

하지만 사람사람이 그것부터 알아야 돼. 눈 뜬 사자라 할지라도 눈 뜬 사자 노릇을 해서는 안 돼. 왜? 눈 뜬 사자라도 허점이 있을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점을 노리는 그 왜, 쪼끔 저거 해 가지고 괜히 몽둥이나 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렇다고 몽둥이 맞을까 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런 걸 다…. 예를 들어서 본래에 이 달은, 본래 달은 있되 달은 없는 거야. 본래 없는 달인데 어떻게 몽둥이가 거기 있겠어? 붙을 게 뭐 있겠어? 본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본래 없는 거다 이거야. (중략)

옛날에도 그런 이치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가난하긴 하지만 예전에 유명한 의(醫)한테 가서 일을 해 주면서 약재를 썰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 비록 무식은 하나 그거를 정성스럽게 하면서 그걸 배운 거라. 그런데 그 의는 참,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라는 걸 버리곤 했단 말이야. 하다가 중간에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받긴 했는데 도대체 이 도리를 의술로써만은, 약재로써만은 도저히 해 나가는 데에 이것이 희박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산중으로 들었어.

산중으로 들어서 어떠한 참, 마땅한 도를 이룬 옛날 조사 스님이 계시니까 거길 들어서 무(無)의 도리를 자기가 포착한 거야. 포착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하면서 장가들고 살아나가다가 아들 둘을 낳고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자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써 줬다 이거야. 모르는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약을 씁네 했지만 자기 마음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약을 남들은 열 첩을 쓸 거를 자기는 반의 반 첩도 쓰지 않고 낫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딴 약인 줄 알지마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야. 하다 못해 저 담 밑의 흙을 긁어서라도 요렇게 싸서 줬다 이거야. 무료로 다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비싼 약재를 사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도 진심으로써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이 낫고 하는 것을 나라에서 알았어. 숙종 대왕 시대의 일인데. 그런데 그 의는 성이 백가였어요.

그래서 무식하지마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마침 나라에서 동궁이 아파서 죽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의를 불러다가 했더니마는 아, 그냥그냥 낫잖아. 그러니 나라에서는 도대체 벼슬을 안 줄 수가 없어, 너무 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벼슬을 줬는데도 여전히 벼슬에는 마음이 없고 그저 들어오라고 그러면 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나와 가지곤 훌렁 벗어 버리고 돌아다니는 거라, 응? 그러니 벼슬아치들이 그걸 보고선 아이고, 무식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숙종 대왕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거야. 너무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면서도 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다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제자들과 자기 아들, 아들이지만 아들도 제자 아닌감.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을 자기가 자처해서 앓아 가지고 그거를 고치도록 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인내가 있고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낫게도 할 수 있으련만 몸소 아팠다는 얘기야. (중략)

그러니 우리 공부하는 이 도리가, 그분들도 그랬지마는 예전에도 모든 지나간 역사를 본다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그저 종교도 우리가 진실하게 이 마음을 밝히면서 공부하다가 이리저리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은 해 나가는 것도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푹 꺼져 버려. 회향이 되질 않아.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직한 인간미! 난 솔직한 얘기지 사람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가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아는 거라. 진실되고 진실치 않고는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주간에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다니까!

>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 **믿음이 있어야 하고**
>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 **정직한 인간미!**

그러니 너무나 멋진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망에, 수없는 그, 갈갈이 헤어날 수도 없는 법망에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 참 너무도 묘법이요,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원이 그렇게 그 도리에 의해서 자유자재권의 열쇠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저런 큰 혹성도 좌우해. 그게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살림살이에 모두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렇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가만히 앉아서 요기에서 나를 쏙쏙 그냥 빼내. 빼내! 빼내면 만 개도 빼내고 숫자 있는 대로 다 빼낼 수 있어. 빼내도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빼내어도 빼낸 사이가 없어. 얼마나 좋아!

야, 남한테 들키지 않으니 좋고 남이 보지 않으니 좋고, 들어가는 것도 모르지 나오는 것도 모르지, 이건 무방비 상태로 문이 그냥, 그냥 탕탕 털린 거라. 그러니 뭐, 강이 깊어서 못 가거나 산이 높아서 못 가거나, 아니, 담이 쌓아져서 못 가거나 또 지구가 이렇게 있고 딴 데를, 허공에 이렇게 지구가 막혀서 못 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거북하지,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이렇게 살기가 좋아도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음미해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응, 부처님의 그 뜻만이 광대무변하고 나는 못났으니까 이걸 배워야겠다.' 그러고 바깥으로 끄달릴 거냐? '참너' 의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해서 바깥으로 줄이 있는 거를 다 포착해라 이거야.

그러니 우리 이 마음 도리라는 게 어떤 사람이든지 때에 따라서는 "아이, 스님은 그저 이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저래도 저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있어야지.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으랴. 이러니 또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 그냥 뒤범벅을 만들어 놔." 이러거든. 본래 진리가 뒤범벅이라. 본래 뒤범벅인데다가 뒤범벅으로 돼 있어도 아주 역력하게 체계가 서 있는 거는 법계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무의 그 도리를 몰라서 뒤범벅 같지만 난 올바로 하는 거라고!

언젠가 한번 사월 팔일이 돼서 "이건 촛불이 하나도 없구먼!" 했더니 촛불이 왜 없느냐는 거야. 허허허. 그런데 촛불 켠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천 명 이상이 켰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런데 올해 촛불 켠 걸 보니까아, 많더군그래. 응? 허허허…. 참 기분 좋았어요. 저 산을 바라보니까, 등을 내려다본 게 아니라 저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봉우리에 화광이 비추더구먼그래. 마음들이 한데 모아져서 봉화불이 켜지듯이 이렇게 켜지니 얼마나 좋을까? 넋을 잃고 바라본 것도 바로 내 거울이라.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과 내 마음의 거울과 같이 동시에 반사가 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따져. 비구니 비구, 무슨 중생 부처, 보살 법신 뭐, 요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게 막혀서 공부를 못 해. 그 일일이 막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누. 이것이 색과 이름에 자꾸 끄달리기 때문이라. 그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래도 안 죽어. 죽는 놈이 글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자 따지고 남자 따지고 이러겠어? 죽은 놈이!

그러면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6월 2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